

호남의병 추모제...“의병 피·눈물, 독립 씨앗됐다”

광복회 광주시지부 개최...후손 등 100여명 참석
학술포럼·역사 특강...한말 항일투쟁 정신 조명

광복회 광주시지부가 15일 ‘제17회 한말 호남의병 추모제’와 ‘제3회 광복회-특수임무유공자회 공동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 노정현 광주특별시교육청 미래시민교육과장, 김선철 광주특별시민주보훈팀장, 신홍수 만대학원 이사장과 광복회원, 의병 후손·독립 유공자 후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TBN광주교통방송 어린이합

창단의 기념공연과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어린이합창단은 권호진 단장의 지휘로 ‘오빠 생각’, ‘너는 듣고 있는가?’, ‘아리랑’을 차례로 선보이며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애국지사 이영규 선생의 자녀인 이철민 광복회원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말 호남의병은 1907~1909년 전국적으로 전개된 항일 의병전쟁을 주도했다. 1909년 일본 군경과의 전투 1738회 가운데 820회(47.3%)가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벌어졌으며, 호남지역 교



광복회 광주시지부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17회 한말 호남의병 추모제’와 ‘제3회 광복회-특수임무유공자회 공동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전 의병 수는 전국의 60.1%에 달했다. 역사 특강에서는 한말 호남의병대장 노천 고광순 의사 기념사업회 고재정 회

장이 ‘독립운동 무장투쟁의 현재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고재정 회장은 한말 의병의 항일투쟁

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호남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국난 극복 과정에서 호남인들이 보여준 역할

을 조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말 호남의병의 희생과 항일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국권의 의미와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육 광복회 광주시지부장은 “의병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난 민군(民軍)”이라며 “의병의 피와 눈물이 독립의 씨앗이 됐고, 불굴의 정신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거쳐 5·18민주정신으로 이어져 이 땅의 정의와 자유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도 “이름 없이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이어온 나라사랑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동부경찰은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일대 다중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치안활동을 실시했다.

광주 동부경찰, 다중밀집지역 순찰 강화

강력범죄 예방 집중

광주 동부경찰은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일대 다중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치안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사건과 관련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승관 동부경찰서장 등은 방범시설물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범죄 취약 요인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배승관 동부경찰서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범죄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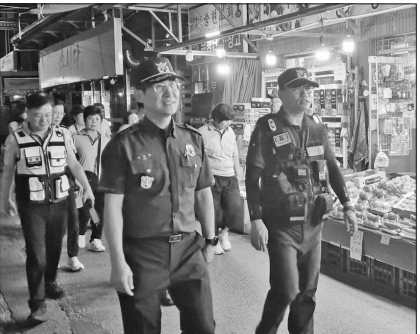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북부경찰 우산지구대, 특별 치안활동

광주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가 15일 잇따르는 강력범죄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자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특별 치안활동에 나섰다.

우산지구대는 북구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을 비롯해 광주역, NC백화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오리타골목 등에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장소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후 가시성이 높은 장소에 순찰차를 집중 배치하는 ‘거점근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광등을 밝힌 순찰차가 현장에 상시 머무르며 주변을 살피는 가시적 치안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잠재적 범죄 기



도자에게는 범행 의지를 사전에 꺾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내부 골목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 범죄 사각지대에는 112 순찰차를 활용한 탄력적인 기동 순찰과 경찰관이 직접 발로 뛰는 도보 순찰을 병행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

구례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권의 증진 유공자 표창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구례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 군민이 하나 되는 통합 구례’를 주제로, 장길선 구례군수를 비롯해 구례군의회 의장, 각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 회원, 읍·면 이장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의 조화로운 발전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여성단체별 임장식을 시작으로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및 부대행사로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구례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례를 담은 숏폼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의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경욱 구례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민선 9기 균형 비

전인 ‘함께하는 3만 구례 행복시대’에 걸맞게 성별과 세대를 넘어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0942@

전남자치경찰위, 목포공고서 청소년안전보안관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전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680명이 참여한 ‘청소년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열어 학생과 소통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나섰다.

캠페인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주관한 청소년안전보안관 사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전남경찰청 등이 함께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학생과 직접 소통하며 학교 안전 위협요인을 살펴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안전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680명이 참여한 ‘청소년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열어 학생과 소통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나섰다.

사안 대응 지원, 위기학생 보호·상담 연계, 교내 안전순찰 등을 했다.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해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도 살폈다. 캠페인은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청소년안전보안관과 친밀감을 쌓도록 체험 중심으로 펼쳐졌다. 푸드트럭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과 청소년동반자가 참여하는 킥 만들기, 배너 꾸미기 등을 통해 학생이 또래 간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9월6일)

48년생 배우자에 대해 의심이 생겨서 근심
60년생 친할수 비탈을 밟설치 마라
72년생 몸이 상할 수 있으니 다투지 말라
84년생 뇌물성 금전은 취하면 해가 된다
96년생 유혹해도 지금 만나는 이성 잘 행거라

51년생 부부 변함없으니 초조하게 생각마라
63년생 자녀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
75년생 실수가 많은 날이니 자중하고 지내자
87년생 난관을 먼저 겪어야 결실을 본다
99년생 친구와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54년생 방심하다가 물거품으로 변한다
66년생 금전 문제를 친구·동료를 탓하지 말라
78년생 지인과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가 좋다
90년생 후배들로 인해 금전 지출 한번 해보자

57년생 아랫사람 덕으로 금전상 행운 따른다
69년생 부부간 갈등 오니 지혜롭게 대처하라
81년생 지인 덕에 기대만큼 보람있다
93년생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한다

49년생 부동산 투자 계획한대로 성공 이끈다
61년생 신중을 기하면 영예로운 일이 있다
73년생 절실한 시기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다
85년생 금전은 채지 있게 판단해야 무리가 없다
97년생 소개팅 할 때 마음보고 사귀자

52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이로움이 없다
64년생 도난이나 날치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
76년생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실행해라
88년생 조금만 더 진행하고 있으면 해결된다

55년생 현안을 쉽게 쉽게 처리 하라
67년생 문자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79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것도 적절하다
91년생 허망한 문서가 날라 올 것

58년생 문서로 인해 가족간에 분쟁
70년생 포장을 잘 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82년생 후배들과 말다툼으로 인해 구설수 있다
94년생 새 아이디어로 발전적 변화 일으킨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토끼



거북



돼지

50년생 거만을 부리면 인심을 잃게 될 것이다
62년생 큰 것보다 작은 것에서 기쁨 느꼈때
74년생 도박·사치 주의하고 절제력을 갖자
86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싹이 트는 날
98년생 희망이 보이니 노력이 필요하다

53년생 주관적인 생각은 오류를 낳는 법이다
65년생 집안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77년생 지인이 운전하는 차에 승차 하지 말라
89년생 후배에게 비탈을 밟설 하지 말라

56년생 아랫사람 조연을 듣고 속단하지 마라
68년생 손쉬운 방법부터 적용 하는것이 옳다
80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사고가 없다
92년생 이성과 관계에 문이 열린다

59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큰 코 다칠 것
71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
83년생 신뢰와 자기 확신이 절실한 때이니라
95년생 금전 손실보다 배신감에 충격이 크다